

# 여성정책 국내동향

2024년 10월 2차



## 주요 현안



###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

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『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(6.19)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임신·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구체화·보완함.

- 주요 보완 대책은 임신초기 유·사산휴가 확대(5→10일) 및 배우자 유·사산휴가(유급 3일) 신설,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,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·출산기구 지원 강화 등임.

#### 참고자료

- [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2024. 10. 30]  
<https://www.betterfuture.go.kr/front/notificationSpace/pressReleaseDetail.do?articleId=387&listLen=10&searchKeyword=&position=S>

### 고용노동부, “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” 발간·배포

☑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힘.

- 매뉴얼은 일·가정 양립과 일·생활 균형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,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·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발간함.
- 매뉴얼에는 유연근무 도입과 도입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도운영의 방법, 적합모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음. 또한 2024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#### 참고자료

- [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2024. 10. 24]  
[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\\_seq=17176](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7176)

## 여성가족부,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

### ☑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힘.

-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,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, 운전면허 정지 58건, 명단공개 4건임.

#### 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4. 10. 21]  
[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\\_rpd\\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12](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12)

##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'결혼·출산·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' 발표

### 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·출산·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,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조사한 <결혼·출산·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> 결과를 발표함.

- 2024년 3월 같은 조사보다 9월 조사결과, 결혼·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며,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'일·가정 양립' 분야로 나타남.

#### 참고자료

- [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2024. 10. 21]  
<https://www.betterfuture.go.kr/front/notificationSpace/pressReleaseDetail.do?articleId=375&listLen=20&searchKeyword=&position=M>

## 여성가족부, 2023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발표

### ☑ 여성가족부는 「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」 점검 결과를 발표함.

- 점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 참여율은 93.7%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, 교육 부진기관은 68개소 감소하였음.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99.2%로 전년 대비 2.4%p 상승하여 제도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.

#### 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4. 10. 16]  
[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\\_rpd\\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07](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07)

##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·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### ☑ 여성가족부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,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·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·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고 밝힘.

- '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'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·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,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.

#### 참고자료

- [여성가족부 보도자료, 2024. 10. 16]  
[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\\_rpd\\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07](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&btSn=710207)



| 구분     | 계류법안(발의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안일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
| 가족·저출생 |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          | 2024. 10. 16. |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인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'1개월 이상'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'6개월 이상'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부담 완화  |
|        |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. 10. 16. | 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   |
| 여성고용   |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등 22인)                 | 2024. 10. 29. | '경력단절'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'경력단절여성'을 '경력보유여성'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 제고(안 제24조제5항)  |
| 젠더폭력   |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등 10인)      | 2024. 10. 14. | 최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범위에 도입하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(안 제11조제8항 신설)   |
|        |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의원 등 20인) | 2024. 10. 28  |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 신설 등). |



연구결과/행사내용 관련

| 과제명  | 날짜    | 매체명     | 제목   | 기사링크  |
|--|-------|---------|--|---|
| 2024년 여성관리자<br>패널조사 학술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24 | 중앙일보    | "여성 많은 기업일수록 관리자 승진 임금 되레 하락"...<br>서비스업 '유리천장' 뚜렷 | <a href="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6806">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6806</a>   |
|  |       | SBS Biz | 기업 규모별 여성 승진 비율은? 클 수록 남녀 격차 크다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198049?division=NAVER">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198049?division=NAVER</a>   |
|  |       | 연합뉴스    | "기업 규모 클수록 관리자 승진비율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"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024150000530?input=1195m"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024150000530?input=1195m</a>   |
|  |       | 이데일리    | "유연근무제 쓰기 좀 그래". 조직 내 '성차별' 때문?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07526639056200&amp;mediaCodeNo=257&amp;OutLnkChk=Y">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07526639056200&amp;mediaCodeNo=257&amp;OutLnkChk=Y</a> |
| [이슈페이퍼]<br>난임 여성노동자의 난임<br>치료 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<br>실태와 정책과제 | 10.29 | 쿠키뉴스    | 난임 지원 '헛바퀴' 돌지 않도록..."사회적 인프라 강화"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www.kukinews.com/article/view/kuk202410250137">https://www.kukinews.com/article/view/kuk202410250137</a>   |
|  | 10.27 |         | 병원 앞 텐트 치고 집 옮기고...난임 치료도 '뺑뺑이'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www.kukinews.com/article/view/kuk202410200029">https://www.kukinews.com/article/view/kuk202410200029</a>   |
|  | 10.27 | 아시아경제   | "난임 치료, 회사에 알리나요?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2509311785894">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2509311785894</a>   |
|  | 10.24 |         | "1등급 병원 있기는 한데"...난임병원 정부평가 있어도 원하는<br>정보는 '썩' 빠져  | <a href="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0816024309844">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0816024309844</a>   |

연구자 언론활동

| 날짜    | 매체명     | 제목   | 연구자명          | 기사링크  |
|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
| 10.29 | 여성신문    | [단독] 온라인 성적욕설 피해자 90%는 남성... "남성중심적 문화 원인"       | 김효정<br>부연구위원  | <a href="https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3734">https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3734</a>   |
| 10.28 | 아시아경제   | "저출산' 정부가 난임 정책 통합 관리해야...<br>지역간 서비스 표준화 필요"    | 김동식<br>선임연구위원 | <a href="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2410453369730">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4102410453369730</a>   |
| 10.17 | 이데일리    | "내 아이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데"...회사에 발 묶인 직장인들             | 김영란<br>연구위원   | <a href="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312006639053904&amp;mediaCodeNo=257&amp;OutLnkChk=Y">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312006639053904&amp;mediaCodeNo=257&amp;OutLnkChk=Y</a> |
| 10.14 | 연합뉴스 TV | 제도와 현실의 디커플링 "제도는 다 있다, 왜 굴러가지 않는가" [플랫폼]        | 정성미<br>연구위원   | <a href="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41014022300641?input=1825m">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41014022300641?input=1825m</a>   |
| 10.14 | 경향신문    | 낙태죄 폐지 5년 지나도 처벌 생각만...<br>"국가가 임신중지 건강권으로 보장하라" | 김정혜<br>부연구위원  | <a href="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410141645001">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410141645001</a>   |
|       | 한겨레     | 4년 흘렸어도...안전한 임신중지는 '의료 밖'에 있다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women/1162491.html">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women/1162491.html</a>   |



##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 변화와 집단내 특성을 살펴보고, 의료 및 돌봄, 주거,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제시

### 참고자료

- [한국보건사회연구원 <보건복지포럼>, 2024. 10. 1]  
<https://www.kihasa.re.kr/publish/regular/hsw/view?seq=65420&volume=65408>

##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분석과 정책제언(육아정책연구소)

2022년부터 도입·시행하고 있는 출생 자녀 대상으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정책인 첫만남이용권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, 향후 정책방안 제안

### 참고자료

- [육아정책연구소 <이슈페이퍼>, 2024. 9. 30]  
[https://kicce.re.kr/main/board/view.do?menu\\_idx=33&manage\\_idx=41&board\\_idx=51453](https://kicce.re.kr/main/board/view.do?menu_idx=33&manage_idx=41&board_idx=51453)